

그림같은 풍광·풍성한 해산물 ... 그리운 '마음의 고향'



전남 강진군 대구면의 하저마을. 마을 입구에 트레일러형 펜션이 최근 조성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마을 앞 바다에는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독살이 있고 인근에 가우도가 있어 한적한 가족여행을 하고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곳이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5ha 갯벌서 바지락·꼬막·낙지 잡고 독살 체험 문만 열면 바다와 마주하는 펜션·민박 등 갖춰

23번 국도를 타고 가우도 출렁다리를 막 지나다보면 저두리 하저어촌체험마을(이하 하저마을)이 있다. 강진만 동쪽 해안의 풍광도 풍광이러니와 바닷가 마을과 구릉, 해변을 지나가는 모みを 맞볼 수 있는 곳이다.

해안을 따라 웅기종기 모인 마을과 드넓은 갯벌에서는 진한 삶의 체취도 묻어난다. 당신이 그리던 마음 속 고향을 옮겨 심은 듯 따스함이 배인 그곳은 여름의 정취와 함께 고즈넉한 옛 포구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저마을은 강진 바지락의 주산지로, 도로변 정자에서 바라보는 바다풍경은 평온 그 자체. 바다 한가운데 출렁다리로 연결된 가우도가 떠 있고, 바다 건너편에는 만덕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석문산, 주작산, 덕룡산, 달마산을 거쳐 다도해로 이어진다.

마을 뒤편으로 저두리의 사계가 마을을 감싸 안고, 마을 앞으로는 소박한 바다와 마주한다. 국도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로 나뉜 마을은 정갈한 한옥들 사이로 새로 지은 이층집들이 오손도손 평화롭다.

고즈넉한 마을의 풍경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놓기 충분한 공간이다. 고깃배가 드나들며 아버지를 신고 갔다 돌아오는 그리움의 공간. 그 아버지를 기다리며 걱정과 근심을 가진 어머니의 묵묵한 삶이 대변되는 공간. 그 공간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을 치유해주듯 물처럼 맑은 생명체가 살아 숨 쉰다.

45ha의 갯벌에서 바지락, 꼬막, 낙지를 잡고, 독살 체험도 해볼 수 있다. 장화, 바구니, 호미는 체험 비용을 내면 마을에서 빌려준다. 독살은 밀물과 함께 바닷가로

밀려온 물고기가 썰물이 되면 자연스레 돌담 가운데 갯벌이 되고, 돌 안에 갇힌 고기를 건져 올리는 전통어법이다. 독살체험과 함께 대나무낚시체험도 즐길 수 있다.

갯벌이 따갑게 느껴지는 한낮에 바지락을 캐고 있는 도시민도 만났다. 박현숙(여·50·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10년째 이곳을 찾아 바지락을 캐고 있다. 저녁에 동료들과 바지락 국을 먹기 위해 왔다는 박씨는 "하저마을 바지락은 크기도 크고 쫄깃한 육질이 일품"이라며 "손만 넣으면 잡히니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바구니를 채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 마을의 명소는 갯벌에 놓인 긴 목책

로, 물이 빠졌을 때는 갯벌 진입로가 되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수상 산책로가 된다.

갯벌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일몰도 잊지 못할 풍광이다. 바닷물이 밀려나가면서 갯벌의 웅덩이마다 반짝반짝 보석이 담기는데 온 몸을 휘감는 황금빛의 아름다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낙조풍경도 풍경이지만 정자 찾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 것은 '주민들의 삶 그 자체'였다.

사실 이 마을은 경작 면적이 적고 바다에서 얻는 소득이 넉넉하지 못해 예부터 뜻사는 동네라는 설움을 겪었다. 작은 고깃배를 띄워 잡는 어류와 갯벌에서 캔 조

개를 이웃마을에서 쌀이나 보리로 바꿔 생계를 이어갈 만큼 척박했다. 지금도 동네 어낙들은 농번기가 되면 해남·완도·영암 등에 나가 마늘·양파를 수확해주고 품을 받는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수장고 연장, 독살체험장 인공 풀 조성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3년이 넘도록 미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옆집에 마실 온 것처럼 쉬었다가 머물다가 한 계절을 날 수 있는 한적한 마을을 찾는다면 하저마을을 추천한다.

숙박시설은 마을회관 1km 반경 내에 펜션, 민박 등 모두 6곳이 있다. 특히 마을 앞 바다펜션은 600평 규모로, 작은방 10개와 2개의 카라반도 소유하고 있다. 문만 열면 바다를 마주하며 머무는 내내 그림같은 풍광을 두고 볼 수 있다.

/임수영기자 swim@kwangju.co.kr



갯벌 체험을 온 관광객들이 갯벌에서 바지락을 잡아들이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찾아오시는 길

강진 하저어촌체험마을 (전남 강진군 대구면 저두바닷길 19)

▶승용차

서해안고속도로→서영암IC→남해고속도로→목리 교차로→마량 방면으로 해안선을 따라 직진→약 12.8km 지나 하저어촌체험마을

▶고속버스

서울강남고속터미널→강진버스터미널→마량행 농어촌버스(약 40분 소요)→하저 정류장→도보 1분→하저어촌체험마을

▶열차

목포역→목포버스터미널→강진행



버스→마량행 농어촌버스→대구면 하저어촌체험마을

“물고기 잡는 방식도 대대손손 이어와 사계절 찾고싶은 관광지 만들어야죠”

문정은 어촌계장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은 물론 고기 잡는 방식까지 예전 그대로 대대손손 이어 온 마을입니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은 어느 어촌마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마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문정은(73)씨는 올해 2년째 강진군 마량면 하저마을 어촌계장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 나고 자라 어느덧 70년을 넘긴 그는 30년을 외지에서 살다 고향을 잊지 못해 다시 돌아왔다.

문 계장은 “마을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마을 형편이 어려워 솔직히 어렵다”면서 “가능성 있는 마을은 국가 지원을 더 늘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방문객이 연 1000여명 정도에 이르는 하저마을은 인근 가우도의 인기에 힘입어 그 수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 한 때 잘 나가던 체험장은 몇 년 손을 놓은 사이 방문객이 줄었고 최근 강진만 어족 자원 고갈 상태로 인해 예전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는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6차 산업에서 답을 찾고 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강진산 굴, 바지락, 낙지, 게를 젓갈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 직거래 판매



하고 마을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무슨 일을 벌이든 마을이 먼저 자립할 수 있을만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그는 “수장고 연장, 독살 체험장 인공풀 사업만이라도 올해 꼭 착수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계장은 “주민 대다수가 이곳에서 나고 자란 분들인데다 끈끈한 정이 살아있어 푼돌 잘 뭉친다며 사계절 살기 좋고, 찾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임수영기자 swim@kwangju.co.kr

미생물 미네랄 풍부 ... 바지락·꼬막·석화 최고급

하저마을 특산물

하저마을은 청정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해 최고 수준의 질 좋은 갯벌과 바다를 유지하고 있다.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한 갯벌과 모래가 섞여 있어 최고 품질의 바지락, 꼬막, 석화(굴)가 생산되고 있다.

갯벌의 질이 워낙 뛰어나 20년 전에는 바지락, 꼬막 치패를 생산해 팔았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서로 먼저 치패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마을을 찾았다고 한다. 또 하저마을 뒷산인 저두산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물이 마을 앞 갯벌로

흘러들어 미생물과 미네랄이 더 풍부해지며, 어패류의 알이 굵어지고 싱싱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석화는 주민들이 돌에 붙어있는 자연산을 직접 채취한다. 예전엔 많은 양이 나와 어리굴젓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어리굴젓보다는 생굴로만 판매한다. 하저마을 바지락은 연중 구입이 가능하며 꼬막, 석화는 겨울철에 구입이 가능하다.

특산물 구매 문의 : 김길호 강진 하저마을 사무장(010-3505-3238)

/김종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과장 kjkair1@naver.com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